

† 함께 하시는 하나님 †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픔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 형의 살해 위협 속에서, 고향을 떠나, 먼 길을 나서야 했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닥다리에서 약속하시길,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 준 하나님 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피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창28:13,15).

아픔은 아내를 얻고 살아가기 위해, 20년을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불일 겨들도 없이 지냈습니다(창31:40). 게다가 품앗이를 열 번이나 바빠치기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꾀박 속에서도, 아픔은 일가를 이뤘고,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아픔은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덕분이었음을(창35:3) 고백합니다. 이제 아픔은 후손들 앞에서 자기 생애를 정리하며, 삶의 모든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호명합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그의 집안을 보살피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들 요셉과 손주 에브라임, 모삭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번성하기를 빌어 줍니다. 애굽이라는 타지 생활 가운데 아무리 고달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호명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한, 그들은 결코 희망을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기억을 소중한 유산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광야길 한가운데서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

가정예배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북동교회

담임목사 김 문 희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47번길 53-1
(감북동)
☎ 02) 478-6003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께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벗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해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낚도 알겠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족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낙낙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용기 주셔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논발의 작물들이 결실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생장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하시오

눈물로 뿌린 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복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하시고,

늘 우리 인생의 기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창세기 48장 15-16절 자녀 중에서

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으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설 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설 교 자

찬 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열고 형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새번역)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